



공적연금 예정 투자수익률 하향조정 압력 증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저금리환경이 지속되고 주식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7~8%의 높은 예정 투자수익률을 설정하고 있는 공적 연금 펀드의 예정 수익률 하향조정 압력이 증가함.

-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1%보다 낮은 이자율을 얻고 있고 주가 등락으로 퇴직연금 계좌(401k)도 불안정한 가운데, 대부분의 공적연금 펀드는 예정 투자수익률을 7~8%로 설정하고 있음.
- 뉴욕시의 대표 계리사 로버트 노스는 뉴욕시 5개 공적 연금의 예정 수익률을 8%에서 7%로 하향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, 연금 혜택을 조정하지 않고 예정 투자수익률만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뉴욕시는 연금 펀드에 매년 19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함.
- 노스는 또한 기대수명과 정신적·신체적 장애 증가를 감안하면 연금 펀드는 28억 달러의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함.

■ 그러나 주정부의 예정 투자수익률 하향 움직임은 예정 투자 수익률 하향조정이 결국 연금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- 뉴욕시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연금 펀드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면서 연금 펀드의 정책 변화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, 뉴욕시 노동 위원회 해리 네스폴리는 예정수익률 인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예정 투자수익률 하향조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함.
- 노조는 연금 혜택 조정 없이 예정수익률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에는 연금 혜택 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함.
- 로드 아일랜드(Rhode Island)주는 공적 연금의 예정 투자수익률을 8.25%에서 7.50%로 하향조정 한바 있으며, 연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연간 3억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연금혜택을 축소함.

(New York Times, 5/27)